

[정규과정]

## 공연, 뉴 트렌드를 읽다

---

‘언택트’, ‘위드코로나’ 시대, 공연 新풍속도

코로나19로 변화한 공연계 트렌드를 알아보고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연 환경과  
이에 대응할수 있는 공연 및 사업 기획방법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튜터 임훈

## ‘언택트’, ‘위드코로나’ 시대, 공연 新풍속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공연예술분야가 공연장 폐쇄 및 매출액 급감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공연예술계는 디지털기술 접목을 바탕으로 공연영상화를 통한 온라인 공연 확산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최근 달라진 공연계 신풍속도 탐구해본다.

### 1. 본격 ‘비대면 공연’으로의 전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공연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온라인 공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기획공연 영상이나 기록영상을 송출하거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코로나 이전부터 공연영상화 사업을 주도했던 베를린 필하모닉과 메트 오페라의 온라인 공연 송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공연 단체 및 극장들이 온라인 공연 서비스 제공에 동참.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을 필두로 온라인 공연 상영, 생중계 확산. 최근에는 온라인 유료 공연 증가. 지난해 몇 개의 뮤지컬 작품이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도미노처럼 확산. 공연예술 장르 중 상대적으로 시장성에 예민한 장르의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찬반의 논란보다는 관객들이 지불한 비용에 걸맞은 공연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진행중

### 2. 코로나 거리두기, 1인 관객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좌석 간의 거리두기 시행. 공연 관계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손실이지만 관객들에게는 좌우 여유로운 공간과 쾌적한 시야를 확보하는 새로운 관람 문화의 발견. 일명 ‘좌 코트, 우 가방’이라 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상의와 가방을 비워진 양옆의 좌석에 편히 두고 공연 관람 가능. 따라서 쾌적 지수가 높아진 공연장에 진입해 혼자만의 편안한 관람을 즐기는 초심자 증가. 더불어 두 사람이 예매해도 공연장에 들어선 순간, 거리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해야 하니 혼자 공연장을 찾는 1인 관객 증가세

### 3. 관객과의 소통 활성화, 온라인 인티머시(intimacy) 필요

코로나 거리두기로 공연후 예술가와의 대화, 팬 사인회 등을 통해 감동을 배가하는 공연 전후의 이벤트 불가.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던 로비 공간도 통제 장소가 되면서 출연진과 지인이 공연 후 건네는 간단한 인사조차 어려움. 이런 이유로 부대 행사를 온라인 중계와 영상에 아예 포함시키는 사례 증가. 출연진과 예술가는 온라인 관객과의 친밀도 교류. 연주와 퍼포먼스에만 신경 쓰던 과거와 달리 관객에게 남기는 의미심장한 메시지 한 줄

에도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상황 도래. ‘작품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는 침묵의 예술가보다, ‘말 잘하는 예술가’가 환영받는 시대. 온라인으로 진입한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댓글을 통해 명확히 전달되면서 이 또한 신경 써야 하는 분위기. 응원과 감상 외에 질문을 하는 관객들에게 공연장과 기획사는 현재 관람 중인 작품과 진행 지점, 출연진에 관한 해설을 서비스하는 분위기가 중요해질 것.

#### 4. ‘집콕’ 모바일 공연 애호족 등장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을 비롯해 ‘소확

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올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와 같은 가치관 확산. 코로나19 유행 후 장기간 집콕으로 인한 취미 생활 다양화, 개인 공간에서의 안정, 자기 계발과 맞물리며 확산, 증가 추세. 포털, 앱을 통해 다양한 공연 정보 큐레이션. 품질 높은 무료 공연을 여러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어 공연예술 관람 취미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을 통해 공연이 전송되자 공연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하는 멀티태스킹족 등장. 공연이 언제 어디서나 손바닥 위에 얹어지자 관람객은 이제 식사나 가벼운 운동 등 일상의 행위를 부담 없이 진행하며 공연을 관람. 이러한 상황에서 관객에게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거나, 공연장과 동일한 관람 리듬을 강요하는 공연은 점차 외면될 것

#### 5. 온라인 공연 확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존재

온라인 공연 확산으로 공연예술의 유통 플랫폼 확장과 새로운 관객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 하지만 현재 국내 공연계에서는 영상 수익 구조가 없는 것이 현실. 불만한 온라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익 목적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료화가 될 경우 창작진, 스태프, 배우 등에 대한 2차 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